

##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 잃어버린 일상 회복 첫 발

오늘 오전 9시 전국 요양병원·요양시설서...동시 접종자 모두가 '1호'  
광주·전남 첫 날 3053명 접종 ... "국민 집단면역 위해 적극 동참을"

26일 오전 9시를 기해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의 요양병원, 요양시설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일제히 시작된다. 곧이어 이르면 27일부터 전국의 코로나19 전담 치료병원 의료진에 대한 백신 접종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정부가 목표로 한 11월 국민 집단 면역 확보를 향해 백신 접종 행렬이 연중 지속된다. <관련기사 2, 3면>

지난해 2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1년 여 만에 감염을 무력화할 수 있는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도 생겨나고 있다.

25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시는 26일 오전 9시부터 하루 동안 요양시설 8곳과 요양병원 5곳 등 13개소 1122명을 대상으로 접종을 진행한다. 접종할 백신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경북 안동공장에서 위탁 생산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이다. 대상자는 앞서 정부가 밝힌 대로 만 65세 미만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1호 백신 접종 주인공은 정부 방침과 마찬가지로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고 오전 9시 접종자 모두가 1호 접종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첫 접종을 시작으로 요양병원 65개소와 요양시설 83개소 1만351명을 대상으로 AZ 백신 접종을 이어간다. 접종 대상자로 분류된 1만959명 중 94.5%가 접종에 동의했다. AZ 백신은 두 차례 맞아야 하므로, 1차 접종 후 8~12주 지나 2차 접종을 하게 된다.

전남에서도 오전 9시를 기해 백신 접종이 시작된

다. 대상지는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의 입소자, 종사자를 포함 1만6797명으로, 오는 3월 초까지 1차 접종, 2차 접종은 8주 후인 4월 말부터 들어간다. 접종 첫날 14개 시군 68개소에서 1931명을 우선 접종하고 시설과 대상을 늘려가는 방식을 취한다.

AZ 백신에 이어 26일 오후에 화이자 백신도 광주와 전남에 공급된다. 코로나 19 환자 치료 의료진 등에 접종할 백신이다. 의료진 교육 등을 거쳐 이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 초부터 백신 접종에 들어간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백신이 순차적으로 공급됨에 따라 접종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도민들도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백신 접종을 앞두고 광주시는 이날 광주시의사회, 대한병원협회 광주·전남병원회, 광주시간호사회,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과 신속한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용섭 광주시장, 양동호 광주시의사회 회장, 김재후 광주·전남병원회 회장, 김숙정 광주시간호사회 회장, 안영근 전남대병원장, 정중훈 조선대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백신 접종을 눈앞에 두고 대한의사협회가 의사 면허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국회의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 접종 거부 움직임을 한때 보이면서 백신 접종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 도착한 코로나19 백신

코로나19 국내 백신 접종 시작을 하루 앞둔 25일 오전, 광주 광산구 보건소 관계자들이 전달받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확인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 아특법, 국회 법사위 문턱 못 넘었다

문화원 직원 공무원 전환 논란  
오늘 재논의 거쳐 본회의 의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정상 운영을 위한 현안 법안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아특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됐다. 법사위는 법률을 논의하는 마지막 관문이며, 아특법은 26일 법사위 재논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법 개정을 바로잡아 정당 운영을 정상화 하려는 시도는 또 다시 유보됐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남) 국회의원이 발의한 아특법 개정안을 보류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은 준정부기관인 아시아문화원을 국가조직화 하는 과정에서 문화원 소속 정규직 직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에 극심하게 반대했다.

지난해 8월 이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이후 수많은 논의를 거쳐 같은 해 12월 23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의 의결을 거쳤고, 지난 12월 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그동안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시아문화전당이 애초대로 국가소속기관으로서 공공적 기능을 추진하

고 콘텐츠 유통 등 일부 수익사업 기능만을 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 수행한다는 것이다. 또한 조직개편 과정에서 기존 직원의 고용승계와 아특법 효력 기간의 5년 연장이 주요 골자다.

아특법 개정안은 문체위에 상정된 이후 여야 정치권의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해당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단일 법안을 두고 3회에 걸쳐 논의되는 진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이병훈 의원은 "광주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자리잡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마련되는 주요 법안이다"며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FC 선수들

## 해상경계 5년 분쟁 '전남 판정승'

경남과 어업권 놓고 다툼  
현재, 권한쟁의심판 전남 손 들어

전남과 경남 간 5년간 지속된 해상경계 분쟁이 전남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헌법재판소는 '전남·경남 간의 해상경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현재의 해상경계를 일관되게 주장해온 전남도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가 결정한 전남과 경남간 해상경계는 지난 1918년 간행된 지형도를 반영한 것으로,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래 70년 이상 행정 경계로 삼아왔다.

지난 2011년 경남의 기선권원망 어선 18척이 전남 해상경계를 침범해 불법조업을 했다. 이들은 2015년 6월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됐다. 이에 경남도는 대법원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그동안 인정됐던 양 도 간 해양경계를 허물고 등거리 중간선을 해상경계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전남도는 기존 소송대리인 외에 유수의 법무법인을 추가로 선임하고, 국회의원과 시장·군수, 도의원, 시·군의원, 사회단체, 어업인 등이 서명한 탄원서를 제출하고 릴레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권한쟁의심판에 대응했다. 이처럼 전남 각계각층의 관심을 비롯해 도민, 여수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과 성원이 해상경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의 승소를 이끌어낸 원동력이 됐다는 분석이다.

전남도는 이번 선고를 계기로 경남도가 현재의 결과에 따라 두 지역 어업인들이 현행 해상경계를 존중하면서 서로 안전하게 조업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도민 삶의 터전을 잃지 않도록 판단해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열렬히 환영한다"며 "이번 해상경계 갈등을 딛고, 앞으로 경남도와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 공동개최, 남해안 신성장관광벨트 조성, 부산-목포 간 경전선 고속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초광역적으로 생생·협력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광주, 콜센터발 코로나 확진자 속출	▶2면
책 세상 - '지능의 역사' '조광조 평전'	▶16면
K리그 내일 스타트 - 광주FC 또 다른 도전	▶18면



### New E. New Attitude.

A new form of Luxury.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하세요!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성 서비스 센터 (062)374-2557 광주광역시 서구 삼평대로 1041(마천동)  
메르세데스-벤츠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명대로 516(수원동)  
호수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이원대로 603(갈매 205호촌동)  
수원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평로대로 520(수원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E 220 4 AM EX (배기량:1950,공차중량:1900, 자동차년, 복합연비:13.2도 심연비:12.2, 고속도로연비:14.7), 등급:3, 복합CO2 배출량:145  
E 220 4 AM AMG line (배기량:1950,공차중량:1900, 자동차년, 복합연비:13.2도 심연비:12.2, 고속도로연비:14.7), 등급:3, 복합CO2 배출량:145  
E 350 4M AV (배기량:1991,공차중량:1920, 자동차년, 복합연비:10.2도 심연비:9.2, 고속도로연비:11.5), 등급:4, 복합CO2 배출량:171  
E 350 4M AMG line (배기량:1991,공차중량:1920, 자동차년, 복합연비:10.2도 심연비:9.2, 고속도로연비:11.5), 등급:4, 복합CO2 배출량:171  
\* 연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용 연비가 차이를 보입니다.  
\* 상기 제품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